

01 교회소식

이스라엘 기독교계의 활발한 사역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가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3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존중히 여긴다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며, 법사에 경외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희귀병을 치료받고 홍수의 위험에서 보호받는 등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 일부를 소개한다.

04 권능의 역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가뭄 중 비가 오고 암,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난다.

만민뉴스

제654호 2014년 10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땅끝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깨어나 부흥하고 있으며,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록 박사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박사를 특별히 보내 주셨다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대인 목회자 쉴로미 아브라모브 목사(리슨 레치온 면류관 보석교회)는 이렇게 말했다.

지속적인 이스라엘 선교의 열매, 크리스탈포럼

1982년 교회개혁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온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7년 7월부터 복음의 오지인 이스라엘을 십여 차례 방문하며 선교를 시작했다.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연합대성회에 감사로 초청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담대히 선포했다.

또한 설교 후 강사의 기도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이 TBN 러시아, 엔라쎬, CNL, 디지털 콩고 등 33개 방송사를 통해 220여 개국에 송출된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민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극소수의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위축돼 있었다.

그러나 성회 후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활기를 띠고 크리스탈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은 이재록 목사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선교 사역의 열매로 결성된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2009 연합대성회 기념성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크리스탈포럼 총무 올렉 하진 목사는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저희 이스라엘 목회자들에게 우리도 자신감 있게 성령의 복음을 이스라엘에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크리스탈포럼은 기념성회와 찬양 페스티벌, 어린이 캠프, 목회자 세미나, 부부 세미나, 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니엘 마찌아쉬 목사(하이파 영광의왕교회)는 “지난 몇 년간 크리스탈포럼의 교회들은 많이 성장했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매년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대로 목회자들은 미국,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아시아 여러 나라 등 많은 나라에서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하며 해외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스라엘 교계의 변화를 설명하며 기뻐했다.

크리스천의 위상이 높아지고 목회자들이 하나 돼

크리스탈포럼은 성회 이후 우리 교회 부목사를 감사로 초청해 기념성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공장소에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가 초대받아 수준 높은 기독교문화를 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하이파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핀란드, 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180여 개국에 생중계 됐다.

드미트리 페트롭스키 목사(음악목사)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니 주(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지요. 이 행사를 통해 크리스천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더욱 하나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영적 성장을 위해 매년 만민중앙교회를 찾는 목회자들

이스라엘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GCN 방송(www.gcntv.org), TBN 러시아, CNL, 홀리갯 TV, 로드로이드 등 방송과 인터넷,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영적 흐름을 함께하기 위해 만민 하계수련회나 교육 등 우리 교회 연중 행사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다.

‘온 영(히 10:22)을 주제로 열린 ‘2014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에 참석한 오렌 렘아리 목사(예루살렘 영광의왕교회)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말씀들을 되새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님께서 제게 신속히 죄를 버리고 변화돼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신 장면이 떠올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후로도 더욱 풍성한 열매로 축복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7)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롬 1:20).

또한 수많은 전도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알려 주지요. 그런데도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며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편 96편 4절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했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요(딤후 6:16).

피조물인 사람도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며, 꼭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존칭을 붙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고 ‘아도나이’ 곧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 등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무익한 농담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영똥하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므로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지요.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기 생각 속에 떠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다.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며 하나님 이름을 거론한다면 심히 무례하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과 생각, 모든 말과 행실을 다 알고 계시며 행한 대로 심판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감히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음으로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말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근신하고 절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대하거나 인용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지요. 또 성전과 성물을 소중히 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며 하나님의 재정도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합니다. 만약, 교회의 물컵이나 성전의 창문 유리를 실수로 깨뜨렸다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사람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무례히 말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하나님 말씀이나 예언이라고 선포해 백성을 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 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지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사칭해 거짓말할 때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며 이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계 21:8).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역사가 아닌데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께서 주관하고 이루셨다.”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만큼 점점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조금 듣는다 해도, 100%가 되기까지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과정이 있기 마련이니 아직 확실히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단정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꿈이나 환상 등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지만 자기 생각이나 사단의 역사로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함당하지 않지요.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면 듣는 편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정확히 알기 전에는 경솔하게 “성령의 음성이다, 아니다.” 하고 단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범죄해 사단의 역사로 재앙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합니다. 또 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했다가 궤이고 막히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며 습관적으로 말을 바꾸며 하나님 이름을 함당치 않게 사용하지요. 자신은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 하지 만 진실한 중심에서 하는 것과 들레고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이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신실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조심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삼상 2:30) 모든 말과 행동을 보장하시며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에서 ‘망령되다’는 것은 ‘늑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경건치 못하며 허망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만물의 의미를 고찰한다는 철학자들 중에서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고, 일반인들 중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전 소련의 한 우주 비행사는 “내가 우주에 가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더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쯤 되면 자신이 탐험한 공간이 전체 우주에 비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잘 알 텐데, 극히 미미한 우주 공간을 탐험해 보 고도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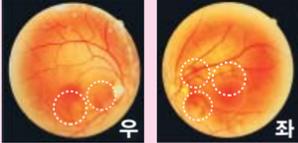
“희귀병인 하라다병을 치료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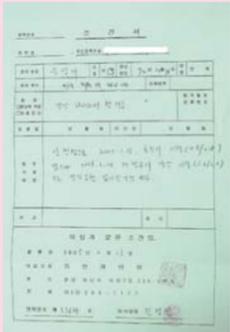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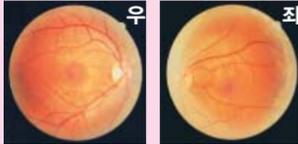
유영미 집사는 왼쪽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더니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직선이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며 물체가 노란색으로 보였다. 심지어 그나마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구도와 어지럼 증세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았는데, 원인은 하라다병이었다.

의사는 눈 안에 물혹이 생겼는데 치료를 해도 시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혹이 커지면 시신경을 덮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신속히 치료해 초점미 고르게 되어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고 사물의 색깔도 제대로 보였다.

● 기도받기 전



● 기도받은 후



▲ 기도받은 후: 양쪽 눈 안의 물혹이 사라지고, 시력 0.8/0.25에서 1.0/1.0으로 좋아졌으며 망막질환이 없어짐.

“결혼 10년 만에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시프 나지르 목사의 아내는 나팔관이 막혀 잉태할 수 없었다.

부부는 이재록 목사에게 잉태의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한국에 가려고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한국에 사진을 보내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았다. 그 뒤 임신이 돼 결혼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간질로 의식을 잃었다가 기도받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조엘 라모스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부정맥 질환과 간질이 있었다. 필리핀 연합대성회에 참석한 조엘 라모스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뻗뻗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런데 감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즉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걸을 수 있었다.



“아토피가 깨끗이 사라졌어요”



김수빈 자매는 네 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다. 고등학생 때는 붓고 짓무른 얼굴을 가리고자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였고, 대학생이 된 뒤에는 더욱 심해졌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것을 끊고 철저히 회개했다. 그 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됐다.



“다발성 뇌경화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에드왈 게라로는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균형도 잡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불치병의 하나로서 일평생 약을 복용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페루 연합대성회 시 감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몸의 균형을 잡고 걸을 뿐만 아니라 시력과 청력도 호전됐다. 성회 후 검진해 보니 MRI 사진에 활동적으로 보였던 뇌 염증이 사라져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다.



◀ 기도받기 1년 전의 MRI (현재한 염증이 있음)



▶ 기도받은 후의 MRI (기존 염증이 보이지 않음)

“권능의 중보 기도를 통해 홍수로 인한 큰 재난을 막았어요”

미카 쿠퍼 박사는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호주 콘퍼런스 조직위원장이어서 2011년 1월 12일, 한국의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큰 홍수가 나서 퀸즈랜드 주에 있는 브리즈번 강의 수위가 8미터 가량 차오르면서 빌딩들의 밑 부분이 물에 잠기고 강 인근과 시내 등 대부분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도를 받은 후 폭우가 그쳤다.

만일 일기예보대로 비가 와서 강물의 수위가 불어났다면 수천 가구가 더 물에 잠겼을 것이다. 권능의 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며 기도해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월 호주 퀸즈랜드 주 대홍수로 브리즈번 강이 범람해 큰 피해를 가져왔다.



Date	Day	Temp Min	Temp Max	Rain	Evap	Sun
		°C	°C	mm	mm	hours
1	Sa	21.7	28.4	0.4	6.6	0.0
2	Su	22.7	29.6	3.0	2.2	11.2
3	Mo	22.9	32.1	0	6.2	6.9
4	Tu	22.2	30.7	0	5.4	7.8
5	We	21.7	29.3	0	5.2	0.0
6	Th	20.5	24.8	41.8	4.6	0.0
7	Fr	19.3	26.8	35.6		0.8
8	Sa	21.1	27.3	11.6	2.0	2.1
9	Su	22.0	27.8	12.2	2.4	
10	Mo	22.5	27.1	110.8	1.4	
11	Tu	23.8	28.6	15.4	2.0	0.0
12	We	21.9	29.6	40.0	2.4	
13	Th	22.1	28.4	0.4	7.8	6.9
14	Fr	19.4	28.9	0	8.2	11.8
15	Sa	20.2	28.8	0.4	7.2	9.2
16	Su	19.5	29.7	0	6.2	
17	Mo	19.5	33.5	0	7.0	
18	Tu	23.2	34.9	0	7.2	10.1
19	We	23.4	31.2	3.4	4.6	10.3

기도받은 다음 날인 1월 13일부터 비가 그치고 강우량이 급격히 줄었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10.5~10.11

October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 창세기 강해 49-53
- ▶ 예언 4
- ▶ 헛되고 헛되니 1-3
- ▶ 일곱영 2-3
- ▶ 마음발을 개간하자 1-3
- ▶ 육체의 결여 9-10
- ▶ 하나님을 만나려면
- ▶ 요한계시록 강해 32
- ▶ 공의
- ▶ 믿음을 처방하십시오 5-9
- ▶ 요한일서 강해 8-12

GCN TV설교

- ▶ 악을 미워하는 것 4 (이수진 목사)
- ▶ 정직한 자 (이미영 목사)
- ▶ 기도 1/ 말씀 2 (이희선 목사)
- ▶ 복있는 사람 4/ 생명의 수 9 (신동초 목사)
- ▶ 충성된 사자/ MIS강의 19 (정규영 목사)
- ▶ 육체의 결여 2 (김승진 전도사)
- ▶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정리라 교육전도사)

- ▶ 즐거운 요리 17
- ▶ 옛날 옛적에 4
- ▶ 모두 드려요 16
- ▶ 흥겨운 소리 2
- ▶ English 2
- ▶ 만민지킴이 10
- ▶ 찬양 드려요 3
-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8
- ▶ 뽕도 튼튼 마유도 튼튼 37
- ▶ 뷰티풀 라이프 9
- ▶ 플로리스트 3
- ▶ 향기 12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 ▶ 페루 연합대성회 2
-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5-6
- ▶ 회상 16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큰 부흥을 이루었다.
 오늘날도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과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또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타들어가는 듯한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회장 다니엘 로젠 목사

2009년 9월 6일과 7일,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연합대성회 강사 이재록 목사는 성회 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해 많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성회를 마친 후 다음 날인 8일부터 이스라엘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공중파 뉴스에도 소개돼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새살이 돌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은득 권사는 대형 솥의 끓는 물을 몸에 뒤집어쓰면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화기가 물러가고 새살이 돌아나 완치됐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김금현 집사는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8번 정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초신자였지만 두 차례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살아 계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교회에 다니면서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자 결심하고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 기도받은 후: 청결과 이명이 호전됐다는 소견

△ 기도받기 전: 여러 군데 림프종(암세포)이 발견됐다는 소견

△ 기도받은 후: 림프종이 사라졌다는 소견

이들 후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에이즈를 치료받았어요”



랄리다는 인신매매를 당해 인도 몸바이 지역에 팔려가게 됐다. 가까스로 경찰에 발견돼 인신매매 소굴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 그녀는 삶을 원망하며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인도 연합대성회 소식을 듣고 사모함으로 참석했다. 강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는 순간, 밝은 빛이 보였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회 후 검진 결과 정상이었으며, 담당의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사이먼 (담당의사_ 갈라디 병원 임상병리 과장)



“빨간 막대가 왼쪽에 오면 양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른쪽에 있으므로 정상인 거죠. 저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잘 들리지 않던 한 쪽 귀가 들리게 됐습니다”

다비드 곤잘레스는 언제부터인지 왼쪽 귀가 잘 안 들렸다. 이로 인해 대화는 물론 라디오 음악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불편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에 참석해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발끝부터 머리까지 시원한 기운이 감돌더니 귀가 잘 들리게 됐다.



“수조 개에 이르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정상으로 됐어요”

임정애 권사는 아들 지호를 임신한 지 4개월 됐을 때 쿼드(QUAD)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었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그녀는 정상아를 출산할 수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조 개에 이르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순식간에 정상으로 바꾸신 것이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영광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광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9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